



예수는 마가복음에서는 언제나 어디론가 가는 길 위에 있는 분으로 그려지거든요. 예수님은 머물지 않고 늘 길을 떠나는 분이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도 걸어갔고 절대 멈추지 않았지요.

그런 분 앞에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마디 첫마디는 ‘선하신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한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치레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어찌 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답하시고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 주제 파악을 하시는 거지요.

본문을 다 읽어보면 이 사람은 재산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런 떠돌이 청년 남성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왜 예수에게 배우는가, ‘선하신 선생님’이라고까지 그렇게 이 사람을 높여 세우는가, 정말 진정으로 존경할만한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요. 십계명들을 꼭 나열하면서 그걸 지키라고요. 이 사람은 자신은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따르려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서인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납니다.

사실 평가를 얻으려면 손에 새로운 걸 쥐려면 손에 있던 걸 움켜쥔 거를 펴야 하는데 이걸 피지 않고 또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 되면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 것 같아요? 예수님 편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어느 면에 훨씬 더 공감 많이 갈까요. 다 이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뭐니까? ‘생명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 가난한 사람한테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삽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대답이 상통하지 않아요.

‘영생’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사용돼요. 놀랍게 마가복음서 전체에서 ‘영생’이라는 말은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 냈고 늘 그런 종교를 통해서 어떤 영생 정말 죽음을 극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영생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잘 죽는 걸 수도 있어요. 성경은 대체로 ‘영원하다’라는 말을 하나님에게만 붙이고 진짜 제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율법에 순종해서 사는 거가 영생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순종해서 그 행위를 하는 거 활동 중심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영생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될 때 존재 중심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찾아온 이 사람은 결국 가만 보면 자기가 가진 재산 때문에 즉 소유 때문에 영생을 포기합니다. 이 성경에 쓰일 때는 농업 문명 시절이었기 때문에 농업 시대니까 땅은 골고루 나눠주고 초반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거기서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무슨 지금 과학 영농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엄청난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엄청난 재산을 갖는 경우는 어느 땅이 비가 잘아서 잘 되고 어느 땅이 못 났을 때 그걸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해서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은 방식으로 재산을 많이 갖는 거지요. 대부분 속여서 빼앗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그런데 그걸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너의 활동의 목표가 소유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고 묻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진짜 영원한 생명에 이룬다는 거 진짜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뭔지 더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2022. 12. 30 평화나무 중무 예배 설교

12월 24일 저녁 해가 넘어간 후부터 1월 6일 주현절이 시작 전까지 12일간이 성탄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의 몸으로 인간세계에 탄생하심을 경축하는 절기로, 죄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그리스도의 순결하심과 우리의 빛이 되심을 상징하는 의미로 흰색을 사용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오심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들 ... 목사 김용민 • 장로 민에스터 • 준목 심민정 • 전도사 이경은 오광석

● 주일 오프라인 모임 예배 오전 11시(지하) • 어린이(벙커업) 오전 11시30분(1층) • 청소년(벙커텐) 오전 11시30분(2층)

● 주중 온라인 모임 수요일 수요사경회 오후 7시30분(유튜브) ● 화·수·목요일 보리떡 오전 5시(유튜브)

● 새해 표어는 ‘하야’

벙커1교회 2023년 표어는 히브리어로 ‘소생한다’ ‘다시 일어나다’ ‘회복한다’ (에스겔 37:4-5, 시편 51:12, 욥기 10:12)에 나오는 하야(חַיָּה)로 합니다. ‘하야를 실현하는 교회’, ‘하야로 온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하야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 조직교회 의결기구 구성

조직교회 원년을 맞아 벙커1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기초해 의결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 당회=담임목사, 시무장로 △ 공동의회=무릎 입교인 전원 △ 제직회=담임목사, 부목사, 준목,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입니다.

● 2023년 섬기는 부서장

벙커1교회는 다음의 교수들을 운영부서장으로 임명합니다.

예배부장 양미혜 교수
재정부장 김경은 교수
교육부장 정성원 교수
친교부장 석민수 교수
사회부장 이상훈 교수
홍보부장 (미정)
이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 서리 집사 임명

당회는 어제까지 등록(강신)을 마친 교수 중 서리 집사와 안수집사, 권사 등 임직자를 확인해 다음 주 8일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출석한 교회에서 항존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하신 교수분은 꼭 민 장로나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해 새벽 모임 신설

내일부터 김용민 목사가 인도하는 ‘새벽 성서 읽기’가 평화나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분 안팎입니다. 교제는 총회 교육부 간(刊) ‘말씀과 삶’입니다. 3월 이후부터 금요일 저녁 성경 공부를 오프라인으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 교회 십일조 안내

11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드리기로 한 교회 십일조는 유가족협의회에서 사당하는 관계로 10.29 이태원 참사 시 민대책회의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12월 교회 십일조는 소년상 지킴이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는데 1,450,706원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 기타 소식

·오늘 공동식사 하루 쉽다
·LED스탠드 현물
·양미혜(미슈까) 교수
·떡 현물
·목련향기 교수
·노회 목회자 세미나
16~18일 속초 더클래스300 (김목사, 심준목 참석)
·금주 현금 5,163,300원

● 2022 기부금 영수증 신청

지난해 현금 납부로 교회 재정 일부분을 담당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아래 주소로 신청해주시오.

주소 <https://url.kr/kseui4>
영수증은 전자우편으로 발급하되 신청자에게만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평화나무 새해 계획

① 한국 정치 영어 동영상 뉴스 제작
전 세계인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제대로 알려 정부 및 자문에 젖줄을 낸 기성 언론이 못하는 사명을 담당하겠습니다.

② ‘짜날리즘’ 잡지로 개편
새해부터 ‘짜날리즘’은 신문에서 잡지로 개편해 후원회원과 독자에게 유익한 시사 및 언론비평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③ 목회자 시사 정보 메일링 서비스 개시
목회자를 위한 시사 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시작해 한국교회와의 접촉면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④ 기독교 신앙 유튜브 채널 개설
평화나무 유튜브를 저널리즘 매체로 남기고 ‘수요사경회’ 등 프로그램을 담은 기독교 신앙 유튜브를 독립해 운용하려 합니다.

⑤ 공익 입법 캠페인 전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공익적 입법 활동을 상시 전개할 계획입니다.

평화나무는 기독교 단체이기는 하나, 그 열매가 교회밖에서도 향유되는 공익적 시민단체가 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속적 후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평화나무 이시장 새해 인사

평화나무는 이전과는 달리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시민운동은 그 존립 기반마저 위태롭습니다.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의 서서히 열려져 가면서 평화나무 또한 생존의 고민에 직면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적대세력의 소송 공세가 지 예견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나아가 또 다른 고난받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고난이 유익한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새해에 동지 의식을 지키며 나갑시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 씌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새기며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faithbook

2023. 1. 1

김재준 문익환 목사님이 작사한 노래 ‘어둔 밤 마음에 잠겨’ 곡조가 전주인 노래, ‘부흥’ 다 아시지요? 고희원 선교사가 이때 내레이션을 성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 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부흥’도 히브리어로 ‘하야(חַיָּה)’입니다. 이미 알려드린 대로 ‘하야’는 ‘소생한다’ ‘다시 일어난다’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곧 “생명과 활력을 하나님께서 부여주심을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부흥은 주저앉은 것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커지는 것입니다. 시들어 가는 것이 활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차가운 것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대반전 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는 ‘하야(חַיָּה)’가 일상에서, 공동체 안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2023년 벙커1교회의 표어는 ‘하야’입니다.

첫 세례 성찬식 가진 교회

벙커1교회가 조직교회 되고 첫 세례식을 지난주 (2022년 12월 25일) 가졌습니다. 김우정 석민수 이주엽 장연선(좌측 사진) 전창운 교수가 우리 교회의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일 교회는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변형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예레미야 29:11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사회 김경은(동글동글) 님 ● 찬양 오광석 님
● 반주 정진호 님 박이정 님

예배를 위한 징 울림	정방남(만주별판) 님
병커1교회 신앙고백	다 함께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하고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나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담과 복이 하나 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찬송		악보 참조		다 함께
기도				민에스터 님
성경		잠언 16:1~9		사회자

- 1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 2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 3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 4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 5 주님께서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 6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 7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 8 의롭게 살며 절제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설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김용민 님
광고				사회자
폐회송		산밋으로		다 함께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축도 담임목사

설교 메모

- 1 To humans belong the plans of the heart,
but from the Lord comes the proper answer of the tongue.
- 2 All a person's ways seem pure to them, but motives are weighed by the Lord.
- 3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he will establish your plans.
- 4 The Lord works out everything to its proper end - even the wicked for a day of disaster.
- 5 The Lord derests all the proud of heart. Be sure of this: They will not go unpunished.
- 6 Through love and faithfulness sin is atoned for; through the fear of the Lord evil is avoided.
- 7 When the Lord takes pleasure in anyone's way, he causes their enemies to make peace with them.
- 8 Better a little with righteousness than much gain with injustice.
- 9 In their hearts humans plan their course, but the Lord establishes their steps.

생각의 샘

2023년 경제적, 사회적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도 많이 힘들 것
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큰 광풍을 만나 죽게 된 것처럼 험난한 광풍이 기다리
고 있는 현실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급한 때에 예수님은 “어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면 이러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 최병학 목사

지난주 설교

누가복음은 로마 권력
자 누구를 거론합니
까? 아구스도입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역지로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아우구스도예요. 아우구스도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로마는 예수님이 오시기 200여 년 전부터 지중해 해상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여요. 한 세 차례. 이 전쟁의 이름이 뭐니까? 포에니 전쟁이지요. 카르타고는 로마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괴망쩍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로마는 이로써 지중해를 앞바다로 만들었어요.

양이 엄청나게 넓어지지요. 전쟁에 동원된 농민에게 보상할 만도 한데 그럴 리가요. 소수 귀족과 군인이 독차지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하자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가 이를 평정해 해소하기 위해 개혁 조치를 세웠지요. 그러나 귀족들이 수긍했습니까? 그라쿠스 형제는 암살당해요. 결국 100년 내전이 이어집니다. 100년이나 내전이 이어졌다면 이 전쟁은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일 겁니다. 많은 이들은 누가 이기든 끝나라, 이렇게 비치고, 마침내 이 전쟁을 수습하고 단일 지도체제를 확립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가 야구스도, 즉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니다. ‘팍스 로마나’(pax romana: 로마의 평화)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이게 야구스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평화가 시작됐습니다.

로마에 야누스 신전이 있었는데 전쟁 있는 동안에는 신전의 문 엽니다. 그런데 야구스도 시대에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과연 정의로운 평화일까요? 천만에요. 야구

3도 시대는 전쟁과 내전에 신물 내 했던 로마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혼란을 종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백성도 야구스도를 환영했지요. 게다가 야구스도는 다른 황제에 비해 식민지에 대해 윤회정책을 썼어요. 각 민족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인정하려고 했어요. 다만 지배당하는 나라가 로마에 도전한다, 결판을 내지요. 그래서 식민지배 국가 백성도 야구스도의 즉위로 인해 닥쳐올 질서를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로마는 그 자체로 질서요, 체제였습니다. 지금 로마에 지배당하는 나라, 주권을 잃은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울 상황도 아닙니다. 도리어 로마 지배를 받으니 문명국 일원이라는 이미지가 생겼어요. 세계를 제패

누가복음 2:11~14

평화로다

김용민 목사

한 아구스도, 자체로 평화요,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더 이상 로마에 대한 도전과 저항이 불필요한 시대. 제국주의와 열심히 싸워온 사람들도 싸울 의지가 접힐 시기, 싸우자고 나서보야 “아 지금 저항해보야 하겠어?”라는 말을 들을 무렵,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이게 오늘날의 포인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야기 예수와 아우구스투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왜 로마를 질렸어야 했나? 로마제국과 유대 민족 사이에는 조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으로 안 보고 세금 출납기로 여기던 로마의 지배 때때,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조사 때문에 고향마을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는 굳이 왜 넣었을까? 인구조사를 왜 하는지 따져보면 답이 나옵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고자 하는 것이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제국에 수탈당하는 백성입니다.

누가복음은 야구스도 시대의 전쟁 없음이 평화로 보이지만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이고 기만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를 봅시다. 하나님임이 이스라엘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오래된 전승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잉태하게 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만하고 거들먹거리는 권력자들을 하나님께 내리치셔서 그 권좌에서 쫓아내 들판에서 허매게 하실 것이며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고 등쳐먹는 부자들을 빈손으로 만들어버리실 것이라는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두 단어를 주목해 봅니다. 바로 ‘다윗’ 그리고 ‘구주’.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식민 지배를 끝내고 강령한 주권국가로 회복하고자 하는 상징입니다. 주변국이 감히 침략할 수 없는 나라, 따라서 다윗을 거론하는 것은 로마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니다.

이번엔 ‘구주’를 볼까요? ‘너희를 위해 나신 구주’에서 ‘구주’는 그리스말로 소테르(σωτήρ)라고 하는데 구원자, 구속자를 뜻합니다. 정치적 군사적 용어라고 합니다. “도탄에 빠지는 이스라엘을 구해낼 장군, 왕”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나쁜 체제를 몰아내고 새 세상을 열자는 하나님의 복음임을.

베드로후서 3:16에는 ‘바울의 편지 중에 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 다. 바울의 편지를 해석하며 겪는 어려움 은 우리만의 어려움이 아니었던 것.

바울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울은 1)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면서 2) 로마 시민이기도 했고, 교회를 세우고 이끈 3)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였지만 신비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4) 신비주의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가 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5) 편지를 받는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 바울 신앙의 역동성이자 바탕이 되는 6) 예수 운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또한 편지를 받는 교회 안에 7) 다양한 배경의 교인들이 있다는 것과 이 모든 교회가 8) 로마제국의 치하에 있었다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로마서는 로마제국의 수도에 있던 로마 교회에 쓴 편지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읽어야 하지만, 이런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개인의 내면이나 교리에만 치중되어 좁게 이해되었다.

로마의 정치 체제는 **왕정** → **공화정**(행정 집권관, 군대 집정관, 원로원, 평민회로 구성) → **원수정**(공화정을 방한한 제정) → **제정**으로 변천되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원수정 시기였다. 공화정 말기에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사회적 폭력에 시달리는 하층 계급들이 늘었다. 분봉왕 헤롯 아래 있던 유대교는 시자에 대한 헤롯의 충성으로 로마 차하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던 그리스도교인들은 하층계급이자 사회적 폭력의 피해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다. 로마서 1:18~32에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마 지혜에 영향을 받은 귀족들(22절)이었다. 이들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가부장제 권력을 이용해 노예를 아들로 삼고 성적 노리개로 만드는 등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쫓겨난 유대인들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 귀족뿐 아니라 평민 사이에서도 린치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어려움을 겪던 히층민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나아지게 되었다. 공화정과 제정의 과도기인 원수정 시기에 황제가 된 어린 네로(17세)는 기존 원로원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 신흥 귀족들로 원로원을 새로 구성했고 대중들의 환심을 살 정책을 펼쳤다. 이런 네로의 정책들로 대중들은 네로가 죽고 나서까

지도 네로를 지지했다.

네로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대중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당시 상황은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용했다. 네로의 정책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해지던 사형적 탄압을 진압되었고,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13:1-5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했다.

로마서 13:6-7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도 로마의 조세제도를 이해하고 읽어야 한다. 당시 로마는 개인이 아니라 콜레기아, 회당 별로 세금을 걷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과 낼 수 없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 바울은 조세를 내지 않아 탄압당하지 않도록 조세를 내되, 공동체 안에서 낼 수 없는 사람의 몫까지 낼 수 있는 사람이 부담하라는 의미에서 의무를 다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로마는 관료 행정 조직이 없었다. 로마 사회를 이끌었던 것은 후견인과 피후견인 정책, 패트론-클라이언트(Patron-Client System) 관계였고, 최고의 패트론, 최고의 아버지는 곧 황제였다. 네로는 최고의 패트론으로서, 가족 국가(파밀리아-familia)를 이끄는 최고의 아버지라고 자기를 높였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7, 8:15, 15:6을 통해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며, 선언하고, 그 아버지의 말아들은 예수님 이시며(롬 8:29), 우리는 모두 이 말아들의 형제자매(롬 1:13, 7:1, 1:4, 8:12, 10:1, 11:25, 12:1, 16:17, 14:10, 15:14)라고 선언한다.

바울은 로마에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로마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참 아버지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주는 중개자로서 로마교회에 편지를 썼다. 과연 진정으로 의로운 아버지는 누구인가? 바울은 로마의 체제와 시스템에 빚대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 질문을 던진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대가족, 파밀리아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이야기한다. 유대교의 율법이나 로마제국의 체제, 제도, 법 등이 아니라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바울의 이 편지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그 결과와 바울의 또 다른 고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다.

/ 강연 학문덕 목사

출연 민에스더 장로, 양현근 교우,

이경은 전도사

정리 심민정 준목

